

# 사 설

## 불교TV 왜 이러는가

불교TV가 허문도사장 강제퇴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엇그제 열린 이사회가 허사장의 강제해임을 결의하자 허사장은 강력반발하면서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몇 달째 파업을 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던 이 이번에는 이사회와 사장이 대립을 하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회사살리기에 총력을 모아도 부족한 형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불교TV의 장래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노조나 이에 대응하는 허사장, 그리고 이사회는 각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노조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몇 달을 기다려 왔는데 회사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불만일 것이다. 또 허사장은 취임이후 부채상환 연기 등 외과 다스리기를 끝내고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퇴임요구가 나오는 것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사회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사장이 선임해 준 주주였던 일을 잘 해야지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이사회 입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회사가 파국을 맞든 말든 자기이익이나 입장만 관철하면 된다는 식은 그동안 불교TV를 걱정하고 후회해온 불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불교TV가 어떻게 세워진 회사인가. 영상문화시대를 맞아 영상포교를 하겠다고 해서 전 불자들이 성공을 모아 설립한 회사다. 불교TV가 개국하자 불자들은 우리도 이제 첨단영상매체를 소유하게 됐다고 기뻐하며 자부심을 갖던 그런 회사다. 그런데 몇 년이 못가 재정적자로 허덕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불자들의 심상과 걱정은

이러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관심과 상원속에 있는 불교TV라면 사장과 임직원, 이사회가 모두 나서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재생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불교TV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포교를 위한 매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불교TV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부분열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달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는가.

오늘의 불교TV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돈'이다. 우선 당장 급한 운영자금 30여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들리는 말로는 노조는 노조대로, 허사장은 허사장대로 후원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놓고 속내를 드러내고 상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지를 가려 물러나던지 양보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적 자세가 아니면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지난 5년동안 축적된 불교TV의 영상물은 한국불교의 소중한 자료들이다. 불교TV는 위성방송과 인터넷시대를 맞는 현대사회에서의 포교매체로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불교TV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회사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영상포교를 위해 반드시 회생시키지 않으면 안 될 회사다. 만약 이러한 비장한 사명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회사를 떠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불교TV를 걱정하는 모든 불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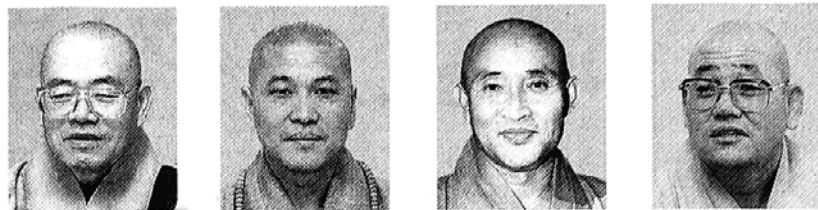
# 고산·지선스님 출마 공식표명

##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정대·법장스님도 출마 가능성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前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15일 실시되는 30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고산스님은 10월29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종도 다중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조계종단은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또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며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깊은 애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또 "본인의 인력



◇고산스님 ◇지선스님 ◇정대스님 ◇법장스님

과 덕화가 미치지 못했음을 개탄하며 산중으로 돌아가 참회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했으나, 위기에 처한 종단의 자정성과 법통을 수호하려는 사부대중의 인력과 합심이 하늘에

달하는 것을 보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부대중의 뜻

에 따라서 할 생각이다. 법통 수호를 위해 위법망구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과 사서실장 성조스님이 배석했으며, 3원 부

장스님과 종회의원 영남, 종정 예경실장 대오,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이 회견을 지켜보았다. 지선스님은 29일 "종도들과 국민들은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욕구가 크다. 종진 스님들도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라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지선스님은 "미국에 며칠간 다녀온 후 지지자들과 협의해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선스님은 또 "누구든지 나와서 종단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며 단일후보 추대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 종회의장 정대스님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석사 주지 법장스님의 출마가능성도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0월29일 선봉사 갯바위 기도도량에서 총무원 및 정화회의의 축진의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병력 4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남북 종교대표단 요르단서 만날듯 25일 WCRP 7차총회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제7차 총회가 '공공의 삶을 위한 활동-다들 천년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25일부터 29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다음 천년의 공동적인 삶을 위한 도전에 나서기 위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인간 발달과 안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인 위원장 등 북한측 대표단 4명이 참석해 남한 대표단과 비공식 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불교계 대표로 인공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등이 참석한다. 김재경 기자

## “재심청구자에 최대한 관용” 월서 심사위원장 밝혀...심사청구 계속 접수

월서스님은 또 "정화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님 가운데 많은 분들도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의 여망에 호응해온 여러 스님들의 결단을 존중하며 응당한 결과로 화답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호계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심사를 청구한 스님은 40여명이며, 이날까지 재심을 청구한 스님들의 징계는 심사가 시작됐으므로 유예됐다. 정성운 기자

## 갯바위서 유혈충돌

### 선봉사·해남사 정확측 일시점거

정화회의측이 총무원 직영사 참인 팔공산 선봉사를 기습 점수하고 총무원이 재점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울산 해남사도 정화회의측이 일시 점거하는 등 종단분규가 주요사찰로 확산되자 양측이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측과 정화개혁회의측이 경산 선봉사를 둘러싸고 10월26일 이후 4일간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화회의측이 10월29일 오전 선봉사 갯바위(약사여래불) 기도처를 점수하는 과정에서 유혈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양측의 충돌로 스님과 신도 등 10여명이 부상, 대구 파티마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현재 선봉사는 총무원측이, 갯바위 기도처는 정화회의측이 각각 점거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이 소유한 각목이나 쇠파이프 40여개를 회수하고 병력 4개 중대를 배치해 폭력사태를 막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일반 신도와 관광객들의 갯바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경찰은 또 폭력사태에 가담한 양측 스님과 신도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갯바위는 임시철을 맞아 기도객들로 붐볐으나 경찰이 기도처로 진입하자 참배자들이 급격히 줄었다. 대구에서 온 한 불자는 "신성한 기도처에 경찰들이 왜 배치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산=이은호 기자

## “종교협력은 적대주의 배척서” 로마 범종교회의 폐막

로마교황청이 세계각국의 종교 대표 등 2백여명을 초청해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범종교회의가 10월28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달라이라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세계 각지의 종교 대표 20명, 성직자 및 신도대표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종교 대표들은 폐막 성명에서 "종교간의 협력은 폭력을 초래하는 관신주의, 극단주의, 적대주의를 배척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구산신문 참선 기행

11월 : 성주산문(성주사지)·무량사·장곡사  
11월에는 무염곡사(801~888)에 의해 개창된 성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오층석탑과 세 개의 삼층석탑 등만이 외로이 남아 변성했던 옛 대가람의 면모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주사지를 찾아갑니다. 인근에 있는 무량사에서는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영정을 모셔놓은 산신각과 경내 한가운데 등적하게 앉아 있는 2층 전각인 극락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등 2개의 대웅전이 있는 장곡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 11월 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비 : 3만5천원(중식 제공)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조계과인회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가을단풍처럼 온누리예

# 불광 창립 25주년 및 월간 불광 300호 발행기념 대법회

1974년 11월 마하반야바라밀 전법의 횃불을 높이 든 채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위광(威光)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하고 나선 불광! 현대 한국불교사에 있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의 새로운 이정표요, 모범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온 불광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 불광이 3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4반세기 포교불사를 점검하고 새 천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진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념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유수의 불자 음악인들이 출연해 펼쳐질 축하 한마당, 울림이 있는 이 자리에 부디 왕림하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지정 합창

<p><b>제1부·대법회</b></p> <p><b>제2부·축하공연</b></p> <p>출연진 : 불광마하보디합창단, 도신 스님, 정을 스님, 박범훈과 중앙국악관현악단, 안숙선, 김영민, 최진숙, 이예주, 아카펠라그룹 인공위성, 김덕수 사물놀이패</p>	<p>일시 : 불기 2543년 11월 14일(일) 13:00 - 17:00</p> <p>장소 : 잠실학생체육관</p> <p>주최 : 불광사·불광법회·월간 불광</p> <p>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금정산 법어사, 재단법인 대각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재단법인 보덕학회,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 시대불교</p>	<p><b>불광 창립 25주년 및 월간 불광 300호 발행 기념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광 홈페이지(http://www.bulkwang.org) 서비스 시작</li> <li>· 월간 불광 내용 목록집(창간호-300호) 발간</li> <li>· 월간 불광 300호(10월호) 및 창간 25주년 기념호(11월호) 발행</li> <li>· 월간 불광 창간 25주년 기념 별책부록(신행수기 공모 입선작 및 전국의 수행처 안내) 발간</li> </ul>
--	---	---